



비올리스트 에르완 리샤는 오페스 앙상블·
에라트 앙상블·현대음악앙상블 소리·코리아
나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화음 챔버 오케스
트라 멤버, 수원대 교수로 재직중이다.

비브라토 의식하기①

글 에르완 리샤 Erwan Richard

번역 정지운

2017년 현재를 기준으로 비브라토가 음악을 조금 더 잘 표현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한다면, 이를 하나의 연주법으로 보기까지는 긴 과정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브라토의 역사

바로크 시대의 비브라토는 단음에 짧고 극명한 영향을 주는 수단으로 여겨졌고, 동시대 작곡가들은 비브라토를 트릴이나 트레몰로와 같은 장식음 역할을 하는 수단으로 기록했다. 이후 시대가 변하면서 비브라토는 긴 음악의 첫 순간에만 사용됐는데, 점차적으로 전체 음가를 채워 소리를 내면서 장식적인 의미를 벗어나 소리의 색과 성격을 규정짓는 그 자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20세기 들어서 비브라토는 연주하는데 있어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작곡가들은 비브라토를 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해서 표시했다.

비브라토의 발전

이러한 비브라토의 발전은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비브라토가 음악에 끼치는 영향을 두고 작곡가와 평론가들은 가장 극렬한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에 대한 작곡가와 평론가들의 여러 견해가 있는데, 특히 모차르트가 그의 아버지에게 쓴 편지에 한 오보에 주자에 대한 불만을 담은 이야기와 19세기의 평론가들이 이러한 유행에 대해 불평하는 평을 보면 알 수 있다. 저명한 플루트 교육자로 알려진 타파넬(Taffanel)은 20세기 초에 “비브라토는 악기의 자연적인 음색을 왜곡시키고 작품해석을 흐트리며 예민한 귀를 빠른 속도로 지치게 한다. 이는 심각한 오류이자 위대한 작곡가들의 곡을 저속한 방법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연주자로서 용서할 수 없는, 취향의 결핍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언급했다.

비브라토와 악기

악기의 테크닉 발전은 예술적 발전을 거쳐 연주 기술에 영향을 미쳤고, 비브라토의 진보적 발전 또한 악기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 바이올린 어깨 받침은 왼손을 조금 더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했고, 첼로 엔드핀은 소리를 2배 이상 크게 했다. 또한 금속 현은 거트현보다 부드러워서 넓고 고른 비브라토를 더 수월하게 해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연주회장이 더욱 넓어져 오케스트라의 규모도 커짐에 따라 연주자는 연주의 크기와 힘을 더 키우기 위해 특정한 방법을 고안해내며 비브라토는 악기의 기술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

관현악기의 비브라토

오늘날의 현악기 주자에게 비브라토가 음의 높낮이를 아우르는 뚜렷한 움직임을 의미한다면, 관악기 주자에게는 이를 넘어선 음색의 화려함과 어조를 의미한다. 예를 들면, 공기의 흐름을 뒤튼거나 입 안에서 모음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바로크 시대에는 활 비브라토가 있었다. 음의 높낮이 변화 없이 바흐의 ‘바이올린 무반주 소나타 1번’ 중 그라베(Grave)의 말미 부분에 표시된 것처럼 말이다.

비브라토의 원리

사실 비브라토는 특정한 소리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기 시작했으나, 재빠르고 기하급수적인 움직임으로 표현력 있는 힘을 가지기 때문에 낭만시대 곡에서 더욱 중요시 여겨졌다. 배음을 자유자재로 울림으로서 현악기의 울림을 가중시키며 소리의 따뜻함과 깊이를 가져가 준다. 비브라토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따른 여러 형태의 비브라토를 조절해서 쓸 수 있다. 진동을 얼마나 자주 주느냐에 따라, 진동을 정해진 박에 맞추는지에 따라, 음정의 간격의 넓어짐에 따라 다 다르다. (다음호에 계속)